

“탈속의 필치로 자연·인간사랑”

문학산책

김홍도의 禪 세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단원 김홍도 탄생 250주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김홍도의 그림세계에 투영된 그의 삶과 불교적 정신의 향취를 한국화가 이호신씨가 되짚어 보았다. (편집자 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혼이 살아 있음을 어떻게 알고 믿으려 하겠는가. 하지만 한 육신을 통한 존재의 자취가 영겁으로 흐르는 진리를 일깨워 줄 때는 경계를 마다하지 않을 수 없다.

불투명한 삶일수록,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간절해지는 존재의식은 가중되는 물질시대에 더없는 고뇌와 번민을 낳고 있다. 따라서 가없이 맑고 고결한 영혼을 품고 싶어 그 슬픔이 살아 숨쉬는 선현(先賢)의 자취가 새삼 그리워진다.

‘단원 김홍도전’을 수차례 탐방하려 하는 나의 심화는 비단 명작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확언에 그

치지 않고, 진실의 승고미와 구도적 인 삶의 자세에서 영혼의 오묘한 승결에 가슴이 저며졌다. 지극히 우리의 자연과 인간을 사랑한 단원은 산수, 풍속, 도사, 고사 인물, 영모, 화조, 기록화, 초상화, 불화 등 모든 분야를 섭렵한 명실공히 조선최고의 천재화가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단원처럼 만민의 공감과 평가를 고르게 받는 화가도 드물터이고 20세기를 넘어서도 ‘단원’ ‘단원’ 할 수 밖에 없는 소이는 진정한 무엇일까 되뇌어진다. 단원은 누구보다 우리의 산천과

삶을 진실하게 표현한 화가로 새 한미리, 꽃 한송이도 세심히 관찰하고 세속의 삶을 유심히 살피고 자연과 산세에도 조선적인 대담으로 해학과 운치를 한껏 더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위대한 예술가의 노력이 산재한 그의 삶과 생활은 발발 일러져 있지 못하다. 화원(畫員)인 증인출신의 단원은 그림에도 글씨와 음악에 잘하고 즐겼는데 그의 아저씨 먼모가 그의 아들 김양기(金良驥)가 엮은 ‘단원유록(檀園遺錄)’에서 겨우 살

수 없고 무덤은 커녕 어디서 죽을 을 어떻게 맞을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 오늘날 ‘불세출의 천재화가 단원’이라는 사실 앞에서 후학은 할말을 잃고 만다.

진정한 예술가는 스스로를 태우는 촛불처럼 세상을 밝힐 뿐 자신은 말없이 소멸하며 자취를 남기지 않는 법인가.

하지만 아쉬운대로 남은 단원에 대한 단원의 증언을 살펴본다.

‘비유이 언중현감에 이르렀으나 집이 가난하여 더러는 끼니를 잊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매화 한 그루를 파는데 매우 기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살수가 없는데 때마침 돈3천을 보내주는 자가 있었다. 그림을 요청하는 돈이었다. 이에 그중에서 2천을 떼내어 매화를 사고 8백으로 술 두어말을 사다가는 동인(同人)들을 모아 배

고 있지마는 또한 사냥이 어떠한 인물인 것이야 아찌 알 수 있랴.’ (표암 강세황의 ‘단원기우일본’)

이같은 단원의 생활상은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중이 창에 흩 바르고 이름 다할때까지 벼슬없는 선비로 시가(詩歌)나 유희하며 살리라”라는 화제로 그의 뜻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비록 증인출신의 신분이었지만 단원의 탈속한 경계(境界)는 특히 불교에 귀의하게된 ‘용주사 불화’ 제작(繪畫) 이후 만년에 이르러 두 드러지게 나타낸다.

초기 ‘군선도(群仙圖, 32세)’의 인연이 30년후 조선의 달마상으로 바뀌어 놓은 ‘절노도해도(折蘆渡海圖)’로 드러나고, ‘염불을 입으로 향하(간지스강)의 모래알만큼 위우고 또 그 모래알만큼 위운다’는



전래의 달마상을 조선인의 얼굴로 바꾸어 놓은 단원 후기의 그림으로 삼근필치가 탈속한 느낌으로 충만하다.

‘용주사 불화’ ‘노승염송도’ 등 만년의 걸작 해학·운치·구도심 화폭 가득... ‘걸림없는 자유인’

과외 정도이다. 그는 약관 30세 이전에 이미 화명을 날렸고, 이후 정조임금으로부터 현감이라는 벼슬까지 오르는 당시로서는 최대의 세속적 출세를 맛보았음에도 말년을 그지없이 가난하고 고독하게 보낸 인물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말이 좋아야 다 좋다’는 식의 잣대로 어렵거나, 지금껏 단원의 정확한 출생지도 알

화음(梅花歌)을 마련하고 나머지 2백으로 쌀과 뽕나무를 사니 하루의 계획도 못되었다. 그의 소관(所管)함이 이와 같았다.’ (조희룡의 ‘호산외사’)

‘사승(단원의 초기호)은 일반적으로 음악에 통하여 거문고와 피리가 매우 절묘하였고 풍류가 호탕하여 칼을 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생각을 가지고 더러는 비장하게 눈물을 흘리는 적도 있었다. 이는 사승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나 알 것이다. 들으니 그가 거처하는 곳은 절상이나 객상이 깨끗이 정돈되었고 피리와 계단이 조율하여 그 집안을 둘러보면 곧 속세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세상이 지속하고 응물한 사람은 걸음은 사능과 어깨를 치며 내내거리를 하

‘노승염송도(老僧念誦圖)’와 탈속한 고승의 걸림없는 모습을 뜻한 단지듯이 그려낸 ‘승도도(拾遺圖)’ 연꽃과 구름을 타고 돌아 앉은채 방광하는 법으로서 승천하는 ‘염불서승도(念佛西昇圖)’, 마치 귀염종이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선 기풍 있는 한 어머니의 상과도 같은 ‘남해 관음도(南海觀音圖)’ 등은 모두 만년의 작품으로 탈속한 필치로서 단원의 궁극적인 이념미와 세계관을 엿보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 단원이 남긴 ‘단원유록(檀園遺錄)’ 중에는 최치원이 세상사의 뜻을 잃고 은일하려는 내용의 시가 해인사 흥유동 계곡에 암각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서도 선(禪)적인 생활이 간취된다. 따라서 단원은 평생을 걸쳐 다양

한 장르를 섭렵한 무소불능(無所不能)의 재능을 펼친 연후에는 지존(至尊)한 선열(禪悅)로서 초탈의 경지를 꿈꾸었던 것만 같다. 하지만 병이 깊어 만년에는 늦게 얻은 아들의 필사금을 마련하지 못해 궁궁하는 현실적으로 무능한 인간임을 통상시 보여준다.

마침내 그의 마지막 기념작(61세)으로 알려진 ‘추성부도(秋聲賦圖)’에서 나는 걸음을 뭘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단원은 적기로 “... 아이! 초목은 감정이 없건만

이호신 <동양화가>



포의풍류도 (布衣風流圖) 단원의 자화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림으로 “중이 창에 흩 바르고 이름 다할 때까지 벼슬없는 선비로 시가나 유희하며 살리라”는 화제처럼 초탈의 경지가 느껴진다.

1996 문학의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알레프 보르헤스 작

“식당 지하실에 있다네. 그건 내꺼야. 내게. 나는 그걸 학교 갈 나이가 되기 전인 어릴때 발견했지. 지하실의 층계는 가파르기 때문에 삼촌들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네. 그런데 누군가가 지하실에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말했지.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그건 과학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다네. 나는 물레 내려 가다가 금자된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 눈을 땀을 때 알레프가 보였어.”

그는 다음해져 알레프를 설명해 주었다.

“알레프라뇨.”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보이는 지구상의 모든 지점들이 뒤죽박죽되지 않고 들어 있는 장소라네. 나는 아무에게도 발견 사실을

누설하지 않았지만 다시 찾아가 보았어. 인간이 시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한 특권이 내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 수니노와 송그리가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지는 못할걸세. 아무렴 전부당 만부당한 일이 지. 법대로하면 순년변화사가 내 알레프가 양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걸세.”

“당장 가봐야 하겠습니디.”

나는 그가 안락다는 말을 끝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놀랐게도 나는 카를로스 아르헨티노가 실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가리기로 갔더니 여중업원이 내게 기다리라고 했고 잠시후 아르헨티노가 왔다.

“이거 포냐 비슷한 이거 한잔 들

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등등의 설명을 종합히 늘어 놓았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고 답답한 지하실에서 그가 자신의 정신착란증세를 위장하기위해 나를 죽이려고 유인한 것인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에까지 젖어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

직경 2~3cm 구체에 우주공간이 축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굉장해요 정말 굉장해요”

다가 됐다.

그때 나는 알레프를 보았다. 나는 층계하단의 오른쪽에서 조그마한 무지개빛 구체를 보았는데 거의 견디어 낼 수 없을 만큼 반짝거렸다. 처음에는 그 구체가 회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나는 그 회전 운동이 구체 속에 담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수많은 광경을 때문에 생겨난 착시 현상임을 깨달았다. 알레프의 직경은 2 내지 3센티미터쯤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우주공간은 크기가 축소되지 않은채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각각의 사물은 한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내가 분명하게 각각의 사물을 보면서 그것을 우주의 모든 지점으로부터 바라보았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바다를 보았고, 새벽과 저녁을 보았으며 아메리카의 군중들을 보았고 부처진 미로를 보았고... 불개해한 우주를 내 두눈으로 보았다. 나는 무한한 외경과 무한한 연민을 느꼈다. “굉장해요 정말 굉장해요.” 이상하게도 내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끝)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등·법당기도등·각종행사등

신개발품 배선 안내

(의장등록 제 2274호, 실용신안인 제 23183호)

재래식 연결방법

연결배선!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수거·보관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이제 한번 구입으로 인건비도 절감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이중절연전선 2.0mm² / 접속고리 / 배선부 / 분리식 / 소켓부 / 보호덮개 / 전등 / 연결부

제품특징

- 전선과 전등소켓부가 분리되어 있어 설치·수거·보관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 재래식 연결방법에서 비롯되는 단락·누전·합선·회로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경용으로 소켓부를 제거한 후 기타 전기작업을 위한 전선공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

- ① 접속고리를 이용하여 못이나 철사 등으로 먼저 전선을 설치합니다.
- ② 소켓부를 전선에 끼웁니다.
- ③ 만약 전등이 필요치 않은 곳은 보호덮개를 달아 놓거나 먼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거보관방법

- 설치의 역순으로 먼저 소켓을 분리한 다음 전선을 알아 수거하신 후 별도로 보관하시면 부피도 적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주문방법

- 전화 또는 발주서 양식에 주문량을 적어 3월 20일한 FAX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안내

- 전등장치는 원하시는 사양대로 제조하여 드립니다.
- 올해 생산량에 한정으로 3월 20일 이전까지 주문분에 한하여 납품이 가능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추시고 기일내에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단가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주문접수기간 : 1996. 3. 20까지 ◆ 납품기간 : 1996. 3. 10~4. 20

문의전화 02) 508-3071~3
0525) 22-4506

제일안전공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4 지영B/D 3층
전화 : (02) 508-3071 ~ 3, 578-9033
팩스 : (02) 508-3073

- 부산 경남지사
- 강남 김해시 영남동 1048-3
- 전북 (0525) 22-4506
- 전남 (0525) 22-4507